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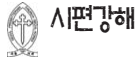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약한 자의 강한 애소

(시편 41:1-1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다윗은 원수들이 결국에는 패망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대하시고, 장래에도 환대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시인의 옳음을 인정하시고 불드시어 주 앞에 영영히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비통한 것은 인간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 열납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시편을 5권으로 나누고, 어떻게 구분했는지의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본편은 시편 40편과 연결되며 1권으로 구분 됩니다. 시편 40편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17절)라고 고백하며 끝을 맺고, 시편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약한 자는 시인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 서있었습니다. 병들고, 약한 원수의 비방 가운데 있고,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는 시인은 마음이 괴로웠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본 시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4절과 10절에 은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4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10절). 이 은혜의 사상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보인 자에게 복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원수들과 거짓 친구들과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그가 병들었을 때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5-9절).

시편 41편의 요약은 산상보훈에 있습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마 5:7).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매우 강조하시며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 25:34-36).

시편 41편의 1-3절은 주제, 4-10절은 그의 슬픈 상황에서 은혜의 호소, 11-13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씀함으로 시편 1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1.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1-3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1절).

본 편은 축복으로 시작되는 3번째 시입니다(1편, 32편). 이처럼 시편 1권은 처음과 마지막이 축복으로 열고 닫힙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신체적으로 병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사회적 위치가 미약한 자, 하나님의 징계아래 고난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빈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경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빈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지켜보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타까운 이웃을 돌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 영적으로 곤고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사 생명을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어 눕게 되더라도 그를 고치셔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빈약한 자를 공홀히 여기는 자는 공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은혜를 호소하다(4-10절)

4-10절에서 시인은 약한 자와 거짓 친구들로부터 받는 잔인한 대우 속에서 공홀을 호소합니다.

“나를 고치소서”(4절)의 히브리 원문은 ‘육신을 고치소서’ 라기 보다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육, 전인 치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병증에 시달렸습니다(시 38편, 41편).

원수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다윗의 초기 원수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들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그토록 미워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질투심으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원수들은 자비를 베풀기느라 악담을 퍼붓고 죽기를 바라면서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병중의 다윗을 문안하러 온 원수들은 그 앞에서는 좋은 말을 다 쏟아 놓으며 동정하는 척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험뜯고 음모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병들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배신을 당했습니다. 특히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을 몹시 괴롭혔습니다(삼하 16:15-17:23).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10절). 이 기도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기독교 정신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다윗이 개인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왕으로서 원수를 멸하기 위해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신실한 통치자의 의무 중에는 반역죄를 지은 자를 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동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 다윗의 신앙 고백

시인은 병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수로부터 모독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쓴 배신을 당한 다윗은 억제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여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10절)라고 하며 여호와께 대한 그의 신앙을 피력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결국에는 패망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대하시고, 장래에도 환대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시인의 옳음을 인정하시고 불드시어 주 앞에 영영히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비통한 것은 인간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 열납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권, 2권, 3권의 마지막은 ‘아멘 아멘’으로, 4권은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5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며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1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기억하게 했고, 자기 백성을 위해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38편과 1편은 병중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삶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은 젊음이나 지식이나 저급통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이 수난 시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도 아멘 아멘”(41절).

우리의 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단기전도학교 개강되다

서울교회 100만인 전도운동의 디딤돌이 되는 단기전도학교가 지난 5일(월) 새벽반을 시작으로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에 백여 명의 성도가 참여 속에 시작 되었다. 단기전도학교는 총회전도학교 교재로 부목사들의 열강과 실습으로 5일간 진행되었다. 3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개 반이 열

린다. 또한 이번 주일에는 태신자 카드가 나누어지며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의 명단을 제출하면 교회는 기도와 더불어 전도책자를 보내주고, 3월중에 전도 집회에 초청된다.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 중등부 겨울수련회

겨울성경학교 2월23일(금)-24일(토) 교회
중등부 겨울수련회: 2월22일(목)-24일(토) 진위고등학교

교육1국(국장: 서문석 장로) 겨울성경학교와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임박하였다.

교육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의 겨울성경학교는 2월23일(금)과 24일(토) 이틀간 우리교회에서 있게 된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이종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개강예배에 이어 각 교육부서 지도교역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 지에 대해 재미있는 설교와 프

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중등부(부장 윤봉준 장로)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평택시 진위고등학교(교장 권혁우 집사)에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를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이종운 목사와 윤영국 목사가 강사로 서 학생들의 신앙 성장과 영성회복을 위한 은혜로운 시간으로 준비한다.

21기 단기 전도학교 수료

21기 단기전도학교가 지난 9일(금) 수료 되었다. 단기전도학교 수료는 5일간 매일 출석을 하고 1시간 이상 현장실습, 한 명 이상 결신 및 등록을 하여야 총회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정병무 정혜운 한상준 조순엽 류장렬 김우량 김영미6 황경신 김윤희 강윤희 진경님 김무선 김희진 김영미5 김우숙 전화진 이준영 이남정 전수자 박순봉 이은선 오형철 전인화 박상운 이신정 이재정 윤명구 이갑진 박우주 장호림 김진숙 황선희 이은희 김수원 박영애 강영자 박희래 김정희 오향숙 노명자 유관모 신도섭 김춘호 이덕빈 김신영 신재호 김혜수 김관홍 윤운제오복 최요섭 신웅식 (이상 68명)

권영희 성도(디아스포라부)

저는 북한을 탈출하여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권영희 성도입니다. 저를 비롯한 탈북동포들이 속해 있는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가 지난 2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는 '구원의 약속 안에 거하라!'는 주제로 이종운 위임 목사님의 특강과 윤영국 목사님 그리고 박광일 전도사님의 지도하에 잠언서와 요한복음을 읽고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은 우리 탈북동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함께 미래의 북한복음화를 위한 비전과 오늘의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시민양성-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북한도 구원해 주옵소서!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읽고 공부한 잠언서와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감격

주중 예배당 사용 사전 신청하도록

사무국에 신청토록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고 다락방을 비롯한 각 선교회 및 전도회와 교회학교 모임들이 활성화 되면서 주중에 예배당 사용이 많아졌다. 교회는 주중에 이용하는 성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성도들과 각 지회에서 각 호실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사무국에 장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주중에 여러 가지 모임으로 교회 사용을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사무국에 최소한 하루 전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또한 주중에 모임을 갖고 교회에서 식사 하는 경우에도 미리 식사 신청을 사무국에 하여 식당에서 여유있게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사랑부 겨울성경학교

오늘 오전 10시30분 102호에서

사랑부 겨울성경학교가 일일 성경학교로 오늘 오전 10시30분에 102호실에서 열린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주제로 이태훈 목사, 주원순 선생이 강사로 사랑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속에서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인해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저희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사 선생님들과 기도과 물질로 봉사해주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디아스포라부 형제, 자매들은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서울교회에서 미래의 북한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디아스포라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탈북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겨울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하나님

제사에서 하나님 예배로 ...



전하미 집사(13교구)

해마다 명절에 시부모님이 제사 지내는 것을 곁에서 지켜 봐야 하는 나는 참으로 답답하고 하나님께 때 번 죄송스러웠다. 시댁은 일 년에 고조까지 아홉번의 제사를 지낸다. 물론 나는 거리가 멀어서 명절에만 참석하지만 시댁이 종가인지라 모든 일가들이 와서 거창하게 차린 음식상 앞에 엎드린다. 남편은 부모님께 추도예배를 드리자고 수 없이 건의해도 부모님은 집안 형제들의 눈치만 보고 집안의 전통을 고수하느라 어렵도 없다. 나는 제사에 올릴 밥과 음식을 준비할 때 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어서 이런 제사풍습이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나의 소원은 오직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대로 나의 기도와 생각과 봉사를 요구하셨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다. 전보다 더욱 정성을 쏟았다. 아버님 병간호를 할 때는 주위에서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시댁일에는 내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었지만 오직 제사 문제는 오지부동이었다. 그러다 작년부터 나의 소원이 오직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절하게 말씀드리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다. 자동차로 다섯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월 한 번씩 내려가서, 결

혼 초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 그 아프던 편두통과 고민거리들이 없어진 일, 지금 나의 기쁜 생활과 삶을 최대한 반복하여 설명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용돈을 드렸다. 그러기를 일 년, 시어머님은 이제 매 주일 버스를 타고 읍내에 있는 교회에 기쁘게 출석하시며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하시며 즐지도 않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신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까지 하신다니 이 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시아버님은 우리가 내려가야만 교회에 출석하시고 아직은 교회가 익숙지 않고 설교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힘들어 하신다. 그러나 많이 변한 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며 이것 저것 물으신다. 큰 아들의 기도로 건강을 유지한다고도 자주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부모님 전도를 위해 먼저 나를 많이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크게 깨닫게 하시어, 내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부모님께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매 달 먼 길을 오가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연로한 부모님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에 힘이 솟는다. 하지만 아직도 아버님은 그 지역에 사는 형제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사 만큼은 못 버리신다고 한다. 그러나 제사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힘든 것임을 인정하시는 것을 보며 내년에는 반드시 잘못된 제사의식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독교신앙으로 돌아설 것으로 확신한다.

천국시민 양성 - 중등부 겨울수련회 초대

꿈꾸는 자가 오도다!

윤봉준 장로(중등부 부장)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이 가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현장의 체험과 더 큰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학연수나 야외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집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중등부에서도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 안에서 성공적인 큰 꿈과 큰 그림과 인생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07년 겨울 수련회는 2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평택시 진위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귀 댁의 자녀들이 꼭 참석하도록 독려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교회에 우리 민족의 거목으로 자라나는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설, 혹은 추석과 같은 명절이 올 때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사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있다.

제사 제도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주희라는 사람이 유교 철학을 만든 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리학(신유교주의)을 만들었는데, 성리학에 의해 착상된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조상을 향해 제사하는 민족은 아시아의 몇 나라와 아프리카의 소수 부족 밖에 없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과 도구로써 중국 사람에 의해 시작된 이 제사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이고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와 종교인양 속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역사적 오류임에 틀림없다.

나의하나님

제사, 왜 문제인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 찾지도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효자인양 거창하게 묘지를 꾸미고 제사를 지내는 등의 조상 숭배는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돌아가신 부모를 기리기보다는 화를 면하기 위해, 또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는 기복신앙에서 유래된 것이요 이것은 분명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아니고, 유교도덕이 만든 인간의 도덕률에 불과하다.

사후의 인간 영혼은 구원에 떠도는 것이 아니고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 사악하고 불복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총명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영생(永生)과 영사(永死)가 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야 할 기독교인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즉, 조상에게 절하고 죽은 조상을 향하여 제사 지내는 습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음을 오직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이종윤 목사님의 '크리스천의 신앙곡선'에서 발췌-

☪ 전국시민양성-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김경원 성도(청년부)



비전, 배우자 선택, 직장생활, 사회에서의 역할...

청년의 가슴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제목들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섬기기 시작한지 1년 남짓, 목사님의 설교말씀과 청년부 GBS모임을 통해 말씀에 근거한 삶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금씩 느껴가고 있던 중,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통해 저는 이러한 기도제목들에 대한 한가닥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금요일,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교회에 도착하니 각자 사회에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교회로 모인 지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서로 반가운 인사와 기도를 드리고 용인의 갈보리 금식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각이었기에 도착하여 짐을 내려놓자마자 찬양대의 인도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장석남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에 익숙해져 갈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느끼며 기도제목들을 하나씩 부여잡고 주님께 고백할 때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같은 조의 지체들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밤늦은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서울교회 청년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교제는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가득하여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저는 평소에도 QT

시간을 아침마다 가지고 싶은 소망이 있었지만 반복된 출근 시간에 쫓겨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둘째 날 이른 아침의 QT시간은 저에게 아침시간의 말씀묵상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첫째 날 장석남 목사님께서 설교중에 주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정독하며 서로의 생활에 적용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말씀이 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는 말씀은 사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씀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년 ‘성경1천독 대장정’에 참가 신청은 하였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는데 아침 QT시간을 성경1독의 시간으로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가운데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시간은 청년부 임원이 준비한 ‘공동체 훈련’으로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게임에 참여하며 어느새 서로를 알게 되고, 금방 친해짐을 느끼며 아쉬움이 가득할 즈음 폐회 예배를 끝으로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마쳐야 했습니다.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사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른 초장

내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찬양예배 특별 순서

■ 할렐루야 찬양대 ■

주일 찬양예배가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드리기 위해 독창, 중창, 트럼펫 연주 등의 레퍼토리를 갖고 준비된다.

오늘 찬양은 정다운, 박혜진, 손영호, 김윤지 등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순서가 기다린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2일(월) 기독교 교도소(아가페) 이사회, 16일(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동문회 임원회에 참여한다.

■ 이사: 이준수 집사 이경희 2권사(11교구)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113-2101 T. 2147-0235
김봉실 성도(1교구) 대치1동 청실@ 15-407 T.3453-1398
박광일 전도사(디아스포라부) 송파구 거여2동 거여3단지@ 303-103 T. 431-9267

■ 득녀(13교구) 박희철 김정희 성도 가정
■ 박사 학위수여 : 서명철 목사(목회학, 28 장로회신학대학교), 유은경 선생(이학, 2/23 한양대학교), 나소정 선생(문학, 2/21 명지대학교)

■ 주간 식당 봉사 : 한나전도회(2.11), 당회원(2.18)
■ 금주의 식사 : 김혜경 권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 주 일 예 배 | I 부 | 오전 9시 |
| | II 부 | 오전 11시20분 |
| | III 부 |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 영 어 예 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 수 요 예 배 | I 부 | 오전 11시 |
| | II 부 |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30분 | |
| 새벽기도회 | 매일새벽 5시30분 | |

2007년 섬김위원 요람 판매중 -1층 서점에서-

2007년 섬김위원 요람이 발간되어 판매 중이다. 요람 가격은 5,000 원으로 제직들과 섬김위원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 성도들은 구입하여 교회의 여러 사역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요람에 수록된 주소나 전화는 교회 업무 외의 상업적 목적이나 놀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Baby sitting 운영 403호 베들레헴 홀

수요예배와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둔 부모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403호(베들레헴 홀)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다.

우리교회 부목사 사모들이 책임있게 많은 유아들을 돌보고 있으니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 단 주일예배(1-3부)는 유치부와 유아부에서 아기를 돌본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교회예산 60%이상 남을 위해 쓸 수 있도록
4.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5.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국·애족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